

비샤몬누마 늪(毘沙門沼)

비샤몬누마 늪은 고시키누마 호소군 중에서 가장 큰 늪입니다. 고시키누마 호소군은 1888년에 반다이산이 분화했을 때 일어난 사면 붕괴로 인해 강이 막혀 형성된 약 30개의 다채로운 색을 띠는 얽은 늪과 습지를 말합니다. 비샤몬누마 늪은 빛에 따라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도 보입니다. 이 늪은 비교적 낮은 산성도를 지니고 있어 플랑크톤이나 물수세미속, 가래속 등의 수생식물이 번식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벼들피리나 황어 등, 여러 종의 어류도 이 비샤몬누마 늪에 서식하고 있습니다.

비샤몬누마 늪은 우라반다이 비지터센터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보입니다. 이 산책로에서 손으로 노를 젓는 보트를 빌려 물 위에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비샤몬누마 늪뿐입니다. 늪 이름은 불교의 사천왕 중 한 사람으로, 무로마치 시대(1136~1573년)부터 숭배되고 있는 일본의 칠복신(행복의 신으로 믿고 받드는 7인의 신) 중 한 사람인 ‘비사문(일본어로 비샤몬)천’에서 유래되었습니다.